

# 원격간호교육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희<sup>1</sup>, 박영숙<sup>2\*</sup>

<sup>1</sup>제주대학교 간호대학, <sup>2</sup>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 and Self-Efficacy on Subjective Happiness of Adult Learners of Distance Nursing Education

Jeong-Hee Kim<sup>1</sup>, Young Suk Park<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원격간호교육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 자기효능감이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 국립원격대학교의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 성인학습자 261명을 대상으로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원격간호교육 성인학습자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 점수는 미국과 한국의 일반 성인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격강점은 6개 하부영역 중에서 초월과 인간애가 가장 높았으며 정의감이 가장 낮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원격간호교육 성인학습자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통합성, 강인성과 지각된 건강상태이었다. 이들 변수가 주관적 행복감 총 변량의 38.0%를 설명하였으며, 긍정적 통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직업과 원격학습을 병행하는 간호사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긍정적 통합성과 강인성의 성격강점을 강화하고 건강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학습 지원전략의 개발을 제안한다.

주제어 : 간호사, 원격교육,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racter strength and self-efficacy on subjective happiness of adult learners of distance nursing education. The subjects were 261 adult learners of Bachelor Science in nursing course for Registered Nurse of a national open university. The mean score of subjective happiness of subjects was a little lower. 'Transcendence and Humanity' among Character Strength was the highest and 'Justice' was the lowest. Multiple regressions showed that positive integrity, hardines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explained 38.0% of subjective happiness and positive integrity was the main influencing factor. The learning supporting strategies focusing on reinforcing these fact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es who are continuing their learning through distance education.

**Key Words** : Nurse, Distance Education, Character Strength, Self-Efficacy, Subjective Happiness

### 1. 서론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급격한 보건의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이 요구된다. 이에

#### 1. 연구의 필요성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uk Park(anywayyoung@knou.ac.kr)

Received January 9, 2018

Accepted March 20, 2018

Revised February 28, 2018

Published March 28, 2018

임상간호사들은 자신의 전문역량 향상과 개발을 위해 직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1], 간호사를 위해 개발되는 보수교육프로그램 수와 이들의 참여율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2]. 또한 2020년까지 학사학위 이상 간호사를 80%로 증가시키므로써 전 세계 간호사의 교육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 요구되고 있다[3].

이러한 전문적인 간호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많은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들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성인학습자의 독특한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비교적 단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직무교육에 비해 학사학위과정을 하는 간호사들은 장기적으로 학업을 병행하면서 일반적으로 힘든 업무로 인식되는 간호사의 직업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4].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28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Altmann[5]의 연구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들이 경제적인 제약, 가족문제, 적절한 학습지원 부재, 상충되는 우선순위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Duffy 등[6]의 연구에서는 RN-BSN 과정의 간호사들이 학사학위과정을 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과 삶의 균형과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교육은 m-learning, e-learning과 같이 다양한 최신 교육매체와 통신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낮은 비용으로도 학업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웹강의(web-based instruction) 형태는 기존의 전통적인 원격교육의 단점들을 극복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학습자의 페이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며 학습자간이나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다[7]. 즉 그동안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경제적인 문제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자의 상황에 맞게 학습할 수 있으므로 성인 학습자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을 병행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러한 원격교육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간호사들의 원격교육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 중도에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이들의 성인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4].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은 학습이 주는 행복감, 즉 외적인 보상이 없이도 활동 그 자체가 즐거워서 계속하게 되는 자기 목적적인 활동인 몰입의 행복감을 줄 수 있다[8]. 또한 평생교육은 보다 원활하고 좋은 수입, 업무,

주거, 건강행위, 의료서비스 이용, 정서적 탄력성, 사회적 역량 등의 다양한 매개과정을 통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9]. 한편 병원간호사의 행복수준은 5점 척도의 문항평균 3.03의 중간 수준으로[10],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 중에서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거나 굉장히 불행하거나 불행하다고 한 간호사는 18.7%이었으며, 조금 행복하다고 한 간호사는 41.2%로 나타나[11], 간호사의 행복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이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습과 행복의 연관성에 관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9], 원격대학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행복수준을 탐색하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요구되며, 이는 이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학습지원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심리학을 처음 제안한 마틴 셀리그만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타고난 성격강점을 찾고 개발하여 일상생활에서 발휘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12,13]. 긍정심리학의 핵심개념인 성격강점은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개인의 독특한 긍정적 특성으로[14,15], 자신의 성격강점을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Kim과 Kwon[17]도 개인의 대표적인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개인의 강점기반 중재의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즉 강점인식집단, 강점활용집단, 약점인식집단, 약점보완집단의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의 인식과 경험, 활용과 보완 경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사항을 매일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한 결과, 강점집단이 약점집단보다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정서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강점인식집단과 강점활용집단의 삶의 만족도, 행복, 긍정정서의 사전-사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개인의 성격강점에 기반한 학습지원 전략의 모색이 학습자의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성인교육 참여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9],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과 성취의 중요한 심리적 내적 동기요인이자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18].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활동선택, 노력, 지속과 정서적 반응 같은 일반적인 동기성과들을 예측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과정과 상호작용하고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19], 최근 연구에서 간호대학

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20,21]. 그러나 원격교육 성인학습자로서 학사 학위과정의 학업과 간호사의 직업을 병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평생교육 고등교육기관이며 대표적인 원격대학교의 간호학 학사학위 편입과정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인학습자 스스로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 성격강점, 자기효능감의 특성과 이들 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과 자기효능감, 원격교육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는 성인학습자인 간호사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을 향상시키고, 긍정심리학 관점의 학업 지속 및 지원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에 있는 성인학습자의 제반(인구사회적 및 원격교육) 관련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에 있는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의 특성을 파악한다.
- 간호학 학사학위 과정에 있는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감 간의 상관성을 확인한다.
-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에 있는 성인학습자의 인구사회적 및 원격교육 관련 특성, 성격강점,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사 특별편입과정에 있는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원격대학교 간호학 학사과정에 편입한 3학년으로 전국 13개 지역 캠퍼스 중 5개 지역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오프라인 수업(off-line class)에 참여한 261명 이었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9월부터 11월 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작성에 약 15~2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상관성과 회귀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크기는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95, 효과크기 0.15로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194명으로 예측되었다. 참여 거부, 결손자료 및 미응답 등을 고려하여 총 27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등을 제외한 261부(94.6%)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및 원격교육 관련 특성은 연령, 성별, 결혼, 경제상태, 종교, 지각된 건강상태, 직업 만족도, 학습매체방법, 매체강의만족도, 튜터 만족도의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2.3.1 성격강점

성격강점은 Peterson과 Seligman[14]의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를 Moon, Kim, Won, Baek, An[15]이 번안하여 축소화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문항 24문항, 부정문항 24문항의 총 48문항이며, 각 두 문항씩 24개의 성격강점을, 각 3~5개의 성격강점이 지혜와 지식, 용기, 인간애, 정의, 절제, 초월성의 6개 덕목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48문항에 대해 요인분석과 문항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토대로 각 문항들을 검토하여 상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난 8, 31, 33 문항을 삭제하고 수정보완 한 45문항을 사용하였다. 45문항의 요인추출방법은 6개 요인을 고정한 주성분분석, 회전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을 이용하였고 요인추출시 고유값은 1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직접 오블리민’과 같은 사각회전 방법에서는 요인들 간의 독립성이 가정되지 않으므로 상호연관을 가지고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22]. 따라서 추출된 6개 요인과 각 문항 내용의 재확인 및 검토과정을 통해 지혜와 지식, 용기와 절제, 초월과 인간애, 정의감, 강인성, 긍정적 통합성으로 재 명명 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Kaiser-Meyer-Olkin 0.7 이상, Bartlett의  $p < .05$ 를 만족하였으며, 패턴행렬은 일반적으로 추출된 요인이 통계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3이상이었다.

부정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성격강점이 잘 발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Park, Peterson과 Seligman[23]의 연구에서 총 48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70, 본 연구에서 총 45문항의 Cronbach's  $\alpha$ =.88, 6개 영역별 Cronbach's  $\alpha$ 는 지혜와 지식 .72, 용기와 절제 .58, 초월과 인간애 .75, 정의감 .72, 강인성 .60, 긍정적 통합성 .65이었다.

### 2.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24], Sherer와 Adams[25]의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 도구로 측정하였다.

‘전혀 아니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ang[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0이었고, Park과 Kim[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7,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83이었다.

### 2.3.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와 Lepper[26]가 개발한 4문항 7점 척도의 일반적 행복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한국어가 가능한 영어원어인 교육자 1인의 번역과 역번역 과정, 간호학 교수 2인과 강사 2인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저자의 사용이 허락된 도구로 총 4문항 중 문항 4는 역코딩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6,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65이었다.

한편 대상자의 행복은 ‘극도의 불행하다’ 0점부터 ‘극도로 행복하다’의 10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1문항의 포다이스 행복척도와 하루 중 평균적으로 행복, 불행, 보통으로 느끼는 시간의 퍼센트(합계 100%)로 측정하는 방법을 추가 사용하였다. 포다이스 행복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으며, 하루 중 각 행복, 불행, 보통으로 느끼는 퍼센트는 하루 중 각 감정 상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13,27].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연구 목적, 연

구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 연구 윤리와 연구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다. 또한 참여자들의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참여 도중에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자료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렸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WI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제반 특성, 성격강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특성은 빈도,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은 Cronbach's  $\alpha$ 계수와 요인분석, 문항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 제반 특성에 따른 행복의 차이 검정은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이 동시에 투입되는 입력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 제반 특성에 따른 행복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255명(97.7%)이었고, 연령은 21-30세가 145명(55.8%)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은 기혼자가 169명(64.8%)이었으며, 경제 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81명(69.6%), 종교가 있는 경우가 150명(57.7%)이었다. 직업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3명(5.3%), ‘약간 만족’이 66명(27.0%)이었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139명(53.3%)으로 가장 많았다.

원격교육 관련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학습매체방법은 ‘컴퓨터’ 사용자가 196명(75.1%), ‘모바일’ 사용자가 60명(23.0%)이었으며, 매체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145명(55.6%), 튜터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142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Differences of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M±SD	F(p)
Age (yr)	21-30	145(55.8)	16.66±3.00	1.27 (.282)
	31-40	56(21.5)	16.84±2.53	
	41≤	59(22.7)	17.03±2.66	
Sex	Male	6( 2.3)	17.67±3.39	.58 (.447)
	Female	255(97.7)	16.78±2.82	
Marriage	Yes	169(64.8)	16.67±2.86	1.01 (.365)
	No	92(35.2)	16.99±2.77	
Economic status	Good	51(19.5)	17.37±3.19	1.98 (.141)
	Middle	181(69.6)	16.75±2.69	
	Bad	29(10.9)	16.10±2.86	
Religion	Yes	150(57.7)	17.13±2.79	4.68 (.031)
	No	110(42.3)	16.37±2.82	
Job satisfaction	Very satisfied <sup>a</sup>	13( 5.3)	19.62±2.22	6.19 <sup>*</sup> (.000)
	A little satisfied <sup>a,b</sup>	66(27.0)	17.38±2.56	
	Just so so <sup>b</sup>	77(31.6)	16.66±2.82	
	Little unsatisfied <sup>b</sup>	73(29.9)	16.27±2.94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sup>a</sup>	15( 5.7)	18.73±2.55	10.45 <sup>*</sup> (.000)
	Good <sup>a</sup>	51(19.5)	17.86±1.80	
	Just so so <sup>a,b</sup>	139(53.3)	16.89±2.68	
	Little bad <sup>b,c</sup>	49(18.8)	15.22±3.01	
	Very bad <sup>c</sup>	7( 2.7)	14.00±4.24	

\* Scheffe test

Table 2. Differences of Happiness according to Distance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	M±SD	F(p)
Learning method	TV	3( 1.1)	18.00±3.61	.98 (.405)
	Audio	2( 0.8)	19.50±2.12	
	Computer	196(75.1)	16.70±2.78	
	Mobile	60(23.0)	17.00±2.94	
Satisfaction for media learning	Very Satisfied <sup>a</sup>	9( 3.4)	18.89±2.32	4.84 <sup>*</sup> (.003)
	A little Satisfied <sup>a,b</sup>	92(35.2)	17.36±2.59	
	Just so so <sup>b</sup>	145(55.6)	16.27±2.87	
	Little or Very unsatisfied <sup>a,b</sup>	16( 5.8)	17.13±2.90	
Tutor satisfaction	Satisfied	142(54.4)	16.89±2.83	1.71 (.182)
	Just so so	97(37.2)	16.44±2.83	
	Unsatisfied	22( 8.4)	17.59±2.61	

\* Scheffe test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분석 결과, 연령, 성별, 결혼여부, 학습매체방법, 튜터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종교 유무( $p<.05$ )와 직업 만족도( $p<.001$ ), 지각된 건강상태( $p<.001$ ), 매체강의 만족도( $p<.01$ )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행복점수가 높았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한 결과에서 직업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 불만족인 경우 보다 행복점수가 더 높았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매우 나쁜 경우가 보통이다, 좋거나 매우 좋은 경우 보다 행복 점수가 낮았고, 약간 나쁜 경우가 좋거나 매우 좋은 경우 보다 행복점수가 낮았다. 매체 강의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매우 만족한 경우보다 행복점수가 낮았다.

### 3.2 대상자의 성격강점, 자기효능감과 행복

본 연구대상자의 성격강점 총점의 평균은 164.74점, 문항평균은 3.67점이었으며, 하부 영역간 비교를 위해 문항평균을 분석한 결과, 초월과 인간애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인성 3.61점이 두번째로 높았던 반면 정의가 3.13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기효능감 총점의 평균은 16.81, 문항평균은 3.68점이었다. 일반적 행복척도의 총점 평균은 16.79점 이었으며, 문항평균 4.20이었다. 포다이스행복 척도의 범위는 1-9 점이었으며, 문항평균은 6.27점 이었다. 하루 중 행복한 시간비율의 범위는 4-87%, 평균 38.3%이었고, 불행한 시간비율의 범위는 0-70%, 평균 14.95%, 보통으로 느끼는 시간비율의 범위는 5-90%, 평균 47.02%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haracter Strength, Self-Efficacy and Happiness of Subjects

Categories (Number of items)	Total Score		
	M±SD	Range	M±SD
Character Strength(45)	164.74±13.23	2.33-4.47	3.67±.29
Wisdom and Knowledge(8)	26.75±3.40	1.5- 4.4	3.35±.43
Courage and Temperance(10)	33.47±3.80	2.2- 4.3	3.34±.38
Transcendence and Humanity(10)	39.91±3.89	2.5- 4.9	4.00±.38
Justice(8)	25.04±3.54	1.4- 4.4	3.13±.44
Hardiness(4)	14.43±2.20	1.3- 5.0	3.61±.54
Positive integrity(5)	16.16±2.47	1.4- 4.6	3.24±.49
Self-efficacy(14)	16.81±12.53	1.50-4.86	3.68±.44
Happiness			
General Happiness(4)	16.79± 2.82	1.75-5.75	4.20± .71
Fordyce's scale(1)	6.27± 1.42	1 - 9	6.27±1.42
Happiness time(%)	38.30±19.60	4 - 87	
Unhappiness time(%)	14.95±11.94	0 - 70	
So-so time(%)	47.02±18.83	5 - 90	

### 3.3 성격강점, 자기효능감, 행복간의 상관성

연구대상자의 성격강점 총점과 주관적 행복감과는 유의한 긍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r=.46, p<.001$ ), 하부 영역에서도 모두 유의한 긍정적 상관성을 보였다. 긍정적 통합성( $r=.46, p<.001$ )과 강인성( $r=.46, p<.001$ )이 가장 높은 상관성을, 용기와 절제가 가장 약한 상관성( $r=.17, p<.01$ )

을 나타냈다. 자기효능감도 행복과 유의한 긍정적 상관성( $r=.33, p<.001$ )을 나타냈다. 이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Correlation of Character Strength, Self-Efficacy and Happiness (N=261)

Variables	Happiness	
	r	p
Character Strength(45)	.46	.000
Wisdom and Knowledge(8)	.26	.000
Courage and Temperance(10)	.17	.006
Transcendence and Humanity(10)	.35	.000
Justice(8)	.31	.000
Hardiness(4)	.46	.000
Positive Integrity(5)	.46	.000
Self-efficacy	.33	.000

### 3.4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학습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 중 행복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종교유무와 직업 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 매체강의만족도의 4개 변수와 행복과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성격강점 하부영역인 지혜와 지식, 용기와 절제, 초월과 인간애, 정의감, 강인성, 긍정적 통합성의 6개, 자기효능감 1개의 총 11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행복의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종교유무는 더미변수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회귀분석의 가정에 대한 분석 결과,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에서 Durbin-Watson 값이 1.92로 나타나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35~.93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3~1.62, 상태지수가 1.07~2.85로 현저하게 크지 않아(<10)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Happiness

Variables	B	$\beta$	t(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Intercept	3.04	-	1.63 (.104)	-	-
Positive integrity	.39	.34	4.88 (.000)***	.564	1.772
Hardness	.36	.28	4.08 (.000)***	.575	1.739
Perceived health status	.64	.19	3.20 (.002)**	.785	1.273

$R^2=.380, Adj R^2=.350, F=12.82(p<.001)$   
\*\*\* $p<.01, **p<.001$

회귀분석결과, 연구대상자 행복의 회귀모형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2.82, p<.001$ ). 긍정적 통합성, 강인성, 지각된 건강상태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은 행복의 총 변량을 38.0% 설명하였다. 이는 Table 5와 같다.

## 4. 논의

본 연구는 원격간호교육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특성과 상관성을 파악하여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하고 긍정 심리적 관점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이론의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를 기틀로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감의 특성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즉 긍정심리학의 핵심적인 연구주제인 긍정적 정서 및 특성 중에서 행복과 성격강점의 개념적 관계를 검증한 측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는 일반 대학생과는 다른 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성격강점이나 행복에 관한 연구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이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학습동기와 관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가 속한 일 원격대학교는 TV,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원격교육과 오프라인의 교실강의,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영상강의의 면대면 교육으로 운영된다. 간호학과는 3년제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를 3학년 편입학 조건으로 3, 4학년 총 2년 과정의 간호학 전공 학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11]. 본 연구 대상자는 간호사의 전문직 성인학습자로서 기혼, 보통의 경제수준, 종교가 있는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매체강의만족도 보통, 튜터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으로 응답한 경우가 각 변수에서 가장 많았다.

행복감은 일반 행복도의 총점 범위 4-28점 중 평균 16.81점, 7점 척도의 문항평균 4.20을 나타냈으며, 포디이스 행복 10점 척도의 문항평균 6.27점, 하루 행복한 시간은 평균 38.3%, 불행한 시간은 평균 14.95%, 보통으로 느끼는 시간은 47.02%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행복도에서 중앙간호사의 문항평균 4.95점[28], 간호대학생 5.04점[29], 원격대학교의 직업병행 간호사 5.09점보다 낮았다.

[11]. 또한 한국긍정심리연구소에서 일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문항평균 4.75점이나 미국 성인의 문항평균 4.8점 보다 낮았다. 포다이스 행복도는 500명 한국성인의 평균 6.89점, 행복시간 50%, 불행시간 11.7%, 보통시간 38.3% 혹은 3,050명 미국성인의 평균 6.92점, 행복시간 54%, 불행시간 20%, 보통시간 26%와 [27] 비교할 때 행복시간이 더 낮아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원격대학교 성인학습자들의 행복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 직업만족도, 지각된 건강상태와 매체강의 만족도로 분석되었는데 종교는 있는 경우, 직업과 매체강의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행복감이 높았으며, 지각된 건강상태는 약간 나쁜 경우와 매우 나쁜 경우가 행복감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성인학습자들의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지원 전략에서 개인적 차원의 종교,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직업적 측면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이는 종교와 신체적 건강이 일반적으로 행복과 중간 정도의 상관성을 보이는 요인이라고 한 Peterson[30]의 견해와 유사하며, Kim[28]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종양간호사가 행복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나 종교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삶의 의미를 주고, 신앙심이 깊을수록 희망과 낙관주의가 증가한다고 한 Seligman[12,13] 견해를 지지한다. 또한 원격대학의 매체강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 및 지원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동기, 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 만족도가 이들의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Kim과 Kang[31]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된 바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행복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참여 동기를 활성화하고 평생교육기관의 서비스관리, 프로그램 질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탐색한 성격강점 및 자기효능감과 행복간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성격강점과 6개 덕목이 모두 많이 발휘될수록 행복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6개 덕목 중 긍정적 통합성과 강인성이 발휘될수록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던 반면 용기와 절제는 상관성이 가장 낮았고, 지식과 지혜도 행복과 상관성 정도가 낮았다. 자신의 성격강점과 덕목이 발휘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12,13],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면 보다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성격강점을 일주일동

안 매일 활용할 경우 우울증상이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속된다고 한 Seligman 등[32]의 견해를 토대로 특히 행복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덕목들을 강화하거나 발휘하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강점을 활용한 안녕감 혹은 행복증진 프로그램은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그 효과를 지속되는 것으로 검증된 최근 연구[33,34]들을 고려할 때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행복증진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들을 개발하여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들의 성격강점(45문항)은 가능한 총점 범위 45-225점 중 평균 164.74점, 5점 척도의 문항평균 3.67점이었으며, 초월과 인간애가 4.00으로 가장 높았고, 강인성이 3.61로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정의는 3.13으로 가장 낮았고, 긍정적 통합성도 3.24로 낮게 나타났다. 48문항으로 측정된 Kim[28]의 연구에서 종양간호사 성격강점 총점의 문항평균 3.38점, 노숙인 3.36점[35] 보다 높아 본 연구대상자의 전반적인 성격강점이 이들보다 잘 발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 긍정적 통합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성인학습자들의 긍정적 통합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휘하도록 하는 지원전략이 행복감 향상에 필요함을 나타낸다. 하부영역으로 분석한 6개 덕목 중에서 초월과 인간애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Kim[2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사의 보편적인 대표강점이 인간애와 초월성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정의가 가장 낮게 나타나 리더십의 발휘와 관련된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가능한 총점 범위 14-70점 중 평균 16.81, 5점 척도의 문항평균 3.68점 이었으며, 자기효능감은 행복과 약한 상관성을 보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생들보다 더 쉽게 참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더 오래 계속하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적게 보이며, 과제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경감시킴으로써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9,36].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인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성인학습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회귀분석 결과에서 긍정적 통합성, 강인성과 지각된 건강상태이었으며, 이들이 행복을 38.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의 긍정적 특성을 이루는 성격강점과

덕목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긍정적 통합성 및 강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중재적 접근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다. 반면 감사, 낙관주의, 자아 효능감과 같은 내적 요소들이 행복감과 더 큰 관련이 있다고 한 Peterson[30]의 견해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행복과 자기효능감은 약한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학습동기나 성과, 학업지속과 성취의 가장 효과적인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18,19,20]을 고려할 때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에 초점을 둔 자기효능감 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로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대학 성인학습자의 특성이나 어려움을 반영하여 학습자의 역량이나 상황에 적합한 과제 개발과 부여, 학업수행에서 장, 단기적 개별 목표 설정, 긍정적 언어를 사용한 직접적인 격려와 피드백, 모델 사례 제공, 직무와의 관련성 향상 등으로 학습참여 동기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성인학습자 중 평생교육 고등교육기관인 일 원격대학교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대상자의 선택편중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원격교육 성인학습자의 개인내적요인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지지와 환경 등의 개인외적요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요인을 포함하지 않은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을 제언한다. 첫째, 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즉 성격강점 중 긍정적 통합성과 강인성에 초점을 두어 일상생활에서 이를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지원 방안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관련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성격강점과 평생학습 행복지수 도구 등 다양한 행복감 도구를 사용한 후속적인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평생교육 성인학습자의 학습에 초점을 둔 자기효능감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평생교육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교의 간

호학 학위과정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성격강점, 자기효능감과 행복의 특성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원격간호교육 성인학습자의 행복은 미국과 한국의 일반 성인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며, 성격강점의 하부 영역으로 분석한 6개 덕목 중에서 초월과 인간애가 가장 높았고, 강인성, 지혜와 지식, 용기와 절제, 긍정적 통합성, 정의 순이었다. 긍정적 통합성과 강인성이 행복과 가장 큰 상관성을 보였고, 용기와 절제가 가장 적은 상관성이 있었다. 성인학습자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통합성, 강인성의 성격강점과 지각된 건강상태로 확인되었다.

## REFERENCES

- [1] H. H. Park, K. O. Lee & S. O. Kim. (2016).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clinical nurses in job train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319-329. DOI: 10.14400/JDC.2016.14.8.319
- [2] J. H. GO, M. R. Han & J. Hur. (2014). The analysis of raw data of completion of off-line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in Seoul, 2008-201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6), 527-538. DOI: 10.14400/JDC.2014.12.6.527
- [3] Institute of Medicine (US), Committee on the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Initiative on the Future of Nursing. (2011). *The future of nursing: Leading change, advancing healt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DIO: 10.101/j.japan.2011.02.002
- [4] Y. S. Park & J. H. Kim. (2015). Daily hassles, self-efficacy and stress responses of adult learners of distance education in digital convergence era-Based on RN-BSN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9), 397-407. DOI: 10.14400/JDC.2015.13.9.397
- [5] T. K. Altmann. (2011). Registered nurses returning to school for a bachelors degree in nursing: Issues emerging from 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Contemporary Nurse*, 39(2), 256-272.
- [6] M. T. Duffy, M. A. Friesen, K. G. Speroni, D. Swengros, L. A. Shanks, P. A. Waiter & M. J. Sheridan. (2014). BSN completion barriers, challenges, incentives, and strategies.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44(4), 232-236. DOI: 10.1097/NNA.000000000000054
- [7] I. Jung, S. Choi, C. Lim & J. Leem, (2002).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interaction on learning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web-based instruction.



-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39(2), 153-162. DOI: 10.1080/14703290252934603
- [8] Y. S. Park. (2010). Relationship between lifelong learning and happiness-With focus on sense of self-respect and Immersion.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2(4), 19-136.
- [9] R. Sabates, & C. Hammond. (2008). *The impact of lifelong learning on happiness and well-being*. London: Institute of education.
- [10] M. H. Nam & Y. C. Kwo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better life index, nursing performance and intents to leav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417-427.
- [11] Y. S. Park. (2014). Perceived stress type, physical symptoms and happiness of nurses-Based on RN-BSN learner of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2(22), 221-230.
- [12] M. E. Seligman. (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13] M. E. Seligman. (2006).(original 2004 published).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I. J. Kim, trans.). Anyang: Mulpure.
- [14] C. Peterson & M. E. Seligman.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Vol.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5] C. Peterson, & M. E. Seligman. (2009).(original 2004 published). *Character Strengths & Virtues: A Handbook & Classification*(Vol. 1)(Y. R. Moon, I. J. Kim, H. J. Won, S. H. Baek, S. Y. An. trans.). Seoul: Korea Counseling Center.
- [16] H. M. Kim & H. Y. Yoon. (2016). Effects of maximizing workers'-emotional character strengths on their subjective well-being and job satisfac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6(1), 23-42.
- [17] J. Y. Kim & S. M. Kwon. (2013).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on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4), 783-802.
- [18] H. A. Kim & H. J. Kim. (2011). The study on factors predicting adult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21(1), 51-78.
- [19] J. H. Kim & Y. S. Park. (2015).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elf-efficacy on psychosocial stress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1), 111-121.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5.21.1.111>
- [20] S. O. Kim. (2017).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ositive think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35-444. DOI: 1014400/JDC20171512435
- [21] E. Y. Kim. (2017). A Study on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385-395. DOI: 10.14400/JDC.2017.15.9.385
- [22] K. S. Roh. (201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Thesis: SPSS & AMOS 21*. Seoul: Hanbit Academy.
- [23] N. Park, C. Peterson, & M. E. Seligman.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24] K. M. Yang. (1999).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owerment, the job-relat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work performance of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5(1), 39-61.
- [25] M. Sherer & C. H. Adams. (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efficacy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3(3), 899-902.
- [26] S. Lyubomirsky & H. S. Lepper.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 [27] M. S. Woo. (2012). *Happiness of Positive Psychology*. Anyang: Mulpure.
- [28] S. L. Kim. (2017). *A Study on character strength and subjective happiness of oncology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 [29] E. M. Kim, Y. H. Yang, H. Lee & M. Yu.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94-303.
- [30] C. Peterson. (2010).(original 2006 published).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Y. R. Moon, I. J. Kim, S. H. Baek. trans.). Anyang: Mulpure..
- [31] M. Y. Kim & H. Kang. (2016). A study of adult learners in the lifelong learning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138-146. DOI: 10.5762/KAIS.2016.17.4.138
- [32] M. E. Seligman, T. A. Steen, N. Park & C. Peterson.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 DOI: 10.1037/0003-066X.60.5.410
- [33] H. M. Kim. (2016). *The Relation between signature strengths and well-being and the effect of signature strengths use based intervention on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4] E. J. Park. (2010). *Effects of signature strength activities and subordinate strength activities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subjective euphor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35] J. M. Lee, & Y. S. Park. (2017). Character strengths,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of the homeless in self-reliance support facilitie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6(1), 67-76.
- [36] A.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Choice Reviews Online*, 35(3), 35-1826.

김 정 희(Kim, Jeong Hee)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0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직무스트레스, 간호조직행동
- E-Mail : snukjh@jejunu.ac.kr

박 영 숙(Park, Young Suk) [정회원]



- 1988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증진, 정신신체간호
- E-Mail : anywayyoung@knou.ac.kr